

## 한 간호학생의 자체평가

팀의 협조와 많은 요인의 상호의존은  
연수간호과정에 있어 학습의 관전이다.



Marie P. Cloney

<우석의대 간호학교> 김 행 자 역

나는 대학 상급학년때 택했던 간호학 연수과정을 돌아볼 때 그 과정의 범위가 꽤 넓었고 그 과정이 나에게 주었던 학문에의 의욕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 놀람을 금할 수 없다. 그 학과의 제목은 상호의존이었다. 즉 환자와 간호원, 간호원과 의사, 간호원과 병원직원, 병원과 사회가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을 체득한 것은 현재의 간호실습에 대한 나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는 이 과정을 공부한 4개월 동안에 환자를 간호하는 근본적이고 협동적인 「팀·웍」이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노력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역할을 좀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나는 교수들의 지도를 받고 나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인정하는데 점점 더 익숙

해졌다. 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걱정, 예기치 못한 계획의 좌절감, 회복되는 환자에게서 느끼는 즐거움 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일을 평가하고 좀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자극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료「팀」의 한 구성원으로써 간호원의 특수한 역할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임상경험은 각 학생들의 관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나는 산과(産科)와 소아과(小兒科)를 택했다. 나는 졸업 후에 모자보건(母子保健)을 연구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훨씬 깊이있는 배움을 제공해 주고, 내가 공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경우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꼭 기뻐다. 나는 그러한 기회들

을 산전(産前) clinic, 소아과 어린 이들의 특별 화상 치료실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의 간호과정으로부터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게 된 것은 내가 언고자 하는 학과실습에 정신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산전(産前) clinic에서의 지속적인 간호는 환자의 임신기간의 정도와 환자의 외래 방문들의 빈도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나는 한 특수한 환자를 수차 접촉하므로써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를 간호하기 위한 장기간의 계획을 곧 세울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뚜렷해짐에 따라 내 간호사업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한 전문가가 환자의 시종일관하여 접촉하는 것, 또 그 환자가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대한 가치를 보여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한 전문간호원이 임상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에서 7주일 동안에 나는 14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환자를 맞았는데 그들 중에는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기혼자, 미혼자도 있었다. 나는 환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선권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문책성이 있는 임신이거나 단순한 임신이거나 두가지 다 접촉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고무적(鼓舞的)인 간호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받아 들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환자를 아무렇게나 선택했다. 나는 여러 명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간호를 해 주었는데 이들중 두 어머니에게는 산욕기까지도 계속했다.

임신 9개월인 자간전구증에 걸려 있는 젊은 R이라는 부인은 우리와 처음 접촉했을 때 겁을 냈는데 두번째 접촉에는 다른 나이 많은 산모들에게서 보통 들을 수 있는 임신의 여러 증상을 우리와 논의했으며 세번째 접촉은 내가 산실로 그녀를 찾아가 맞았는데 그때는 난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R부인은 분만 직후 너무도 모성애가 넘쳐 풀렸기 때문에 그녀와의 나의 지도적이고 보조적인 토론은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녀는 6주일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그녀 자신과 어린아이에 대한 즐거운 보고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때에 우리는 가족계획을 논의했다.

내가 여러번 접촉했던 다른 S라는 부인은 임신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R부인에 반하여 S부인의 간호기록은 거의 없는데 그녀는 어머니 교실에서도 수줍고 조용해서 우리와의 짧은 첫 면담에서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다. S부인이

진찰실을 4번 방문하고 병원의 산후 외래소에서 그녀를 한번 접촉하는 동안 그녀는 나의 괴로움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도와 주었다. 나와 접촉하는 동안 S부인은 임신 하게 됨에 대한 실망, 어린아이들에 대한 미움, 출산에 대한 그녀 자신(自信)의 결핍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그자신 자유스럽게 표현한다면 내가 듣고 도와 줄 것이라고 인식했다. 우리는 그녀가 임신이 가치있는 것이라고 느끼도록 함께 노력했다.

### 교육의 기회

내가 외래에서 얻은 경험은 모두가 개개인의 환자로부터 얻은 것 만은 아니고 집단적인 환자들로부터 얻은 것도 있었다. 나는 외래 간호원이 통제하는 어머니반(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나는 이 역할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했다. 건강을 위주로 한 이런 분야에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 지도간호원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판단력과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임무이기도 했다. 이 반(班)은 5주일 간의 교육을 받는데 각 시간은 30분 썩이고 이 과정에서는 생식작용, 식이(食餌), 진통과 분만, 초생아, 가족계획, 산

전운동(産前運動) 등을 가르치었다.

이 반(班)의 교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병원당국이 인정한 과정을 내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몇가지 점을 수정해서 사용했다. 시각보조재료, 소책자, 문답식 강의 등은 수업의 다양성을 더해 주었고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았다. 어떤 임신부에 있어서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되었고 그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대개의 임신부들은 그들의 신념을 고양(高揚)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과 정보를 서로 교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반(班)에 공헌하는 점이 적지 않았다. 이 반(班)의 구성원 자격은 계획적인 출산전의 약속 때문에 유동적(流動的)이었는데 이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은 1~4주일의 간격이 있는 약속을 받은 후에는 외래를 방문했고, 나는 학생간호원 지도자로서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이 반(班)을 통솔한 4개월 동안 각 학습의 성격은 모두 달랐으며 나에게 자극적인 경험이었다. 가르치는 학과 범위는 언제나 같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념은 각 반마다 점점 증가되었고 특히 산모의 건강분야에 대한 내 간호학 습득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

## 간호의 향상

산모에 대한 경험은 동시에 소아과에 대한 경험이기도 했다. 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입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특별 병동에 입원한 화상을 입은 어린이에게는 입원이라는 것은 매일 dressing을 잡아 주어야 하며 운동억제 변화무쌍한 얼굴에 대한 두려움, 또 장난감이나 친구가 전혀 없는 형벌과 같은 것이었다. 또 다른 어린이에게는 입원이라는 것은 충분한 음식과 자유로운 장난, 많은 장난감, 새로운 옷 등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의 어린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어머니가 없다는 점이다.

내 최초의 경험은 정도가 다른 화상으로 입원한 6명의 어린이들이 있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무질서한 입원실에서 시작되었다. 각각 다른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준과 동시에 나의 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간호 계획도 수립되어야만 했었다. 이것은 나 자신은 물론 이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상급 간호 학생들에게도 고등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밝혀진 문제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번 회합을 열고 각 환자에 대한 우선권과 협조적인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수 및

병원직원들과 상의하고 또 자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함으로써 각 환자에게 대한 적절한 간호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이 병동은 성인용이었기 때문에 나의 특별한 임무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난감을 모으는 일과 이 병동 안의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공급실을 만드는 일이었다. 소아병동의 유희요법사(遊戱療法使)는 나의 중요한 지원자였는데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 어린이들의 방 반대쪽에 오물과 잠동산이가 딱 들어찬 한개의 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끔히 치우고 어린이들에게만 소용이 되고 또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장난감을 갖다 놓았다.

놀이요법(療法)은 우리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치료법이 어린이에 대해 치료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다. 놀이란 어린이의 감정 표현의 정상적인 방법이며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 자신의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린이는 그의 요구를 크게 이해해 주는 간호요법사(看護療法使)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 간호「세미나」에서 놀이 치료법의 가치를 논의한 후 나는 내가 돌보아 주고 있던 화상을 입은 4살된 「지미 R」이라는 아이에 대해 딱 짜인 놀이치료계획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장난감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35분 이내에 인형을 물에 달가서 옷을 적시고 또 때때로 그 dressing 을 다시 적시곤 했다. (그당시 silver nitrate 치료법이 「지미」에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도적인 늘이 치료에 대한 「지미」의 반응은 병원 직원들의 관심을 도왔으며 나는 병원 전직원들을 위한 장난감장을 이 늘이방에 마련해 놓게 되었다.

입원에 관해 어린이들이 듣는 감정과 그 감정의 표현 방식은 가지각색이다. 나의 경험은 진형성 「류마치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13세의 「셀리」라는 소녀와 알게 되므로 풍부해졌다. 그는 8살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이 소아과에서는 낯설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그의 무릎에 장치한 contracture를 제거하기 위해 입원했을 때였다. 이 불구가 된 섬세한 사춘기의 소녀는 가정사정 때문에 자기 병의 물리요법 치료와 약품혼합과 매일의 활동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있었으며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는 숙제를 받았다. 그의 유일한 탈 등두는 결핵과 관절염으로 앓고 있는 아버지 뿐이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셀리」는 명랑하고 열성적이었으며 독립심

이 강한 것같이 보였다.

만성병 병동의 정신과의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는 「셀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녀를 간호해 줄 수 있고 또한 간호원을 「셀리」와 아주 친하게 사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공동치료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재활원 간호원과 주기적으로 상의하고 여러 해 동안 「셀리」에게 관심을 가져온 특별히 숙련된 재활원 요원과 구체적인 간호계획을 조성하였다.

6주일 동안 나는 「셀리」와 더불어 인형을 만듦과 그녀의 머리를 감겨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때때로는 부록 고정과 운동 등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수술전이나 견인장치하기 전에는 두려운 시간을 가졌었다. 우리들은 그의 학습의 진전과 또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 관찰상황의 상호 교환

「셀리」의 전반적인 치료와 치료계획을 짜는데는 많은 분야의 협조가 필요했다. 우리 병원 안팎 각 「팀」요원 사이의 대화는 치료목표 달성과 계속적인 간호사업에 절대적으로 없어서 안될 것이었다.

나는 「셀리」를 정기적으로 맡아온 보건간호원과 보고를 교환했으며 「셀리」의 병색을 알리기 위해 도시전강

관리국에 보고서를 냈으며 건강관리국이 「셀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셀리」를 돌보는 일만이 내 일과의 전부는 아니었다. 연수간호과정과 아울러 학생들은 공중보건간호분야의 경험을 쌓도록 결정되었다. 나는 「셀리」집 근처에서 공중보건간호의 경험을 쌓도록 배치 받아 「셀리」와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H”씨네 집 전가족을 살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셀리」의 경우를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여기서 발견한 「셀리」의 생활에 나 자신을 적용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자기 집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고 지금 그의 다리는 부목으로 인하여 기동력, 압박상태, 오락활동 등 모두가 똑같이 쉽게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집에 찾아오는 학교 선생님과 건강관리국의 물리요법사의 협조로 해결되었다. 나는 「셀리」가 외래환자전료소에 찾아 오던 날 그를 볼 수 있었고 나는 내가 병원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계」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환자에 대해 간호원이 갖는 기능과 치료계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셀리」를 돌보는 일은 하나의 의무적인 것이었고 또 그것은 지도력과 「팀·웍」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경험이었다. 나는 이렇게 광범하고 복잡한 건강관리「팀」의 노력과 활동의 중심인물이 있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간호라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Nursing Outlook  
June, 1967 에서>

이 금 전 저

## 보 건 간 호 학

값 { 일 반 가 800원  
      학 생 가 560원

양장 · 四 · 六배판

대한 간호협회 출판부 발행